

해방후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의 새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박 영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전군중적운동으로 식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산림보호사업을 잘함으로써 모든 산들을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이게 하며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5권 346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산림조성사업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모든 산들을 나무가 무성하고 풍만한 자원을 가진 산으로 전변시키면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애국심을 더욱 북돋아주게 된다.

해방전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산림자원략탈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산과 들은 별거숭이로 되고 황폐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여 산림조성사업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3월 2일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많아 푸른 숲이 우거지고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 예로부터 명승지로 그 이름을 떨쳐온 모란봉은 일제의 략탈만행으로 하여 자기의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란봉을 둘러보시며 옛날에는 모란봉에 나무가 많았다고,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모란봉의 나무를 략벌하였다고 가슴아픈 심정으로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란봉의 여기저기를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꽃들도 많이 심어 모란봉을 공원으로 잘 꾸려 평양시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지로 만들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길옆에 가지꺾어진 한그루의 소나무를 보시고 못내 아쉬워하시며 모란봉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곳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마음대로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조국산천을 그리도 열렬히 사랑하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을 맞으시는 첫 봄날에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모란봉에 오르시여 산림건설의 원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2월 평안남도 중화군(당시)을 비롯한 여러 지방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산림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나무심기운동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당과 국가에서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2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식수기념주간을 정하고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직전개하며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식수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주체36(1947)년 3월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결정되었으며 농림국에서는 식수주간에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무모를 비롯한 식수사업에 요구되는 자재와 도구 등을 마련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면서 산림조성사업의 위대한 앞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4월 6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어린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었다.

평양시민들과 함께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아름다운 우리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건설하며 문수봉을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릴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조국의 앞날과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어야 하며 온 나라의 산들을 수림이 무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산림조성사업은 자연을 개조하는 어려운 사업이며 장기적으로 해야 할 방대한 사업이므로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광범한 대중이 펼쳐나서 산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벌거숭이 산들은 다 없어질것이며 온 나라의 산들에 수림이 우거지게 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질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은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군중적운동으로 식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산림보호사업을 잘함으로써 모든 산들을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이게 하며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나무모키우는 사업을 잘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모든 산들을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이게 하며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우리 인민을 이 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산림조성을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워주시었다. 그리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전체 인민들은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봄철식수사업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섰다.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자기 지방의 기후와 토질에 맞게 식수주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운 다음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떠선 평양시민들은 봄철식수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힘찬 투쟁을 벌렸다. 대타령, 모란봉에서만 하여도 7만 5 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원되어 6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시의 모범을 따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식수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평안남도에서는 식수주간에 17만 1 250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동원되어 한사람당 100그루이상 나무를 심기 위한 투쟁을 벌려 5월 1일까지 자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북도에서는 28만 6 581명의 근로자들이 동원되어 5월 12일현재로 연간식수계획총면적을 119%로, 나무모심기계획은 111%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 자랑스런 성과는 나라의 모든 산을 하루빨리 나무가 우거지고 풍만한 자원으로 가득찬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조국산천을 록음이 우거지게 하려면 나무를 많이 심을뿐아니라 심어놓은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속에서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9월 각 도 선전관계 책임자련석회의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 연설들과 로작들에서 산림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산림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산림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산림보호에 필요한 지식을 전체 인민들에게 가르쳐주어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산림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우리 당은 문화선전부문에서 농촌에 내려보낼 산림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구호와 선전화를 찍고 신문, 방송 등 출판보도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광범한 농민들속에서 산림을 애호할데 대한 선전교양을 광범히 조직하며 군중강연사업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주체36(1947)년 3월 북조선농민동맹 제4차 중앙확대위원회에서는 농민들속에서 산림을 애호할데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산림애호의 필요성과 산불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아래동맹조직들이 이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각지의 농민동맹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가 다른 실정을 고려하여 그들속에서 산림을 애호할데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상의 특성에 맞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국각지에서는 광범한 대중속에서 산림을 애호할데 대한 선전교양사업이 자체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벌어졌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농민동맹의 주관하에 농촌구락부, 민주선전실을 리용하여 농민들속에서 산림을 애호육성할데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산림을 애호할데 대한 선전교양사업이 힘있게 진행된 결과 우리 농민들속에서는 누구나 다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려는 기풍이 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6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북조선림야관리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여주신 《북조선림야관리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들에게 산림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안겨주고 조국의 산림자원이 인민의 복리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게 하는 인민적인 산림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림야관리령》을 채택하도록 하신데 이어 주체35(1946)년

6월 립야관리령위반자처벌준칙을 제정하도록 하심으로써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법적통제를 원만히 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국유화된 산림의 보호관리사업을 국가법령으로 확고히 담보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산림법은 주체적인 발전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림관리에서 법적통제를 강화하도록 일련의 조치들과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0월 《북조선토지개간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여 국유화된 산림을 마음대로 개간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산림을 개간하려고 할 때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농림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시는데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3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산림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 결정서에서는 토지개혁법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농민들이 소유한 적은 산림》이라는것은 묘지 및 집터에 소속된 산림이라는것을 밝히고 그것을 제외한 일체 산림을 4월 말전으로 바치도록 하며 각 농촌(면 혹은 리)들에 농림국의 허가를 얻어 농민들의 공동리용림을 설치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주체38(1949)년 7월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급속히 발전된 산림건설사업을 총화한 기초우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 산림관리전반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39(1950)년 1월에는 산림관리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내각결정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산림을 철저히 보호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은 국가의 확고한 법적담보밑에 철저히 보호관리되면서 우리 인민들의 새 생활창조에 적극 복무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처벌을 비롯한 산림관리에서의 무규률적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국가적인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이 차지하고있던 산림이 국유화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나무를 란도벌하며 마음대로 화전을 개간하거나 산불을 일으켜 산림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는 등 무규률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림보호관리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이 감독통제의 기능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35(1946)년 7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4차 상무위원회와 이듬해 8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46차회의에서 산림의 란도벌과 산불방지에 만전을 가하는 문제, 법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을 철저히 단속통제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기 위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주체36(1947)년 12월 《북조선지하자원, 산림지역 및 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산림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엄격한 제도를 세우며 나무를 망탕 찍는 위법현상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에서는 반동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의 파괴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각지의 계서판들에 경고문을

내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각종 범죄행위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엄격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산림경영기관에 잠입해있던 불순분자들이 제거되었으며 산림일군대렬은 정비되고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규율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온갖 위법현상들이 극복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불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반동분자들의 고의적인 방해책동으로 하여 산불을 막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9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47차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각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방화대책위원회와 같은것을 조직하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37(1948)년 3월 산불방지대책위원회를 나오게 하고 내무, 검찰기관들로 하여금 산불을 놓았거나 란도벌하는자들에 대하여 엄격히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주체38(1949)년 7월 내각결정을 채택하여 기관차에 의한 산불을 막도록 철도연선마다 방화선을 설치하고 해마다 2회이상 보수하도록 하였으며 주체39(1950)년 1월에는 내각결정 제2호를 채택하여 산림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산불방지대책과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 당과 정부가 취한 조치에 따라 전국도처에서는 산불을 막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전국각지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해당 도, 시, 군, 면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고 내무기관 및 산림기관 일군들로 산불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산불경계반의 조직과 지도, 산불소방대의 소화훈련조직, 소화기구의 정비검열, 소화동원 등 임무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산불을 미리 막을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의 새 역사를 펼쳐 주심으로써 일제의 략탈책동으로 하여 벌거숭이로 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우리는 산림조성사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나가야 한다.